

新刊물량 엄청난 사회과학출판의 한 산맥

‘언론학 전문’ 명성에 다양성까지 겸비한 나남출판사

우리출판계에 물량주의로 승부를 거는 두 출판사를 들라면 아마 고려원과 나남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이삿짐 문치를 싸듯 책을 싸들고 홍보용이라며 들이치는 신간보통이는 받아드는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고려원이 편집부의 규모나 책의 내용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나남의 경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방학·광고학·정치사회학 등 일반대학의 ‘정경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출판하는 전문영역도 그렇고 편집부의 인원이라야 여덟명, 총무·영업부 다 합쳐 16, 7명을 넘지 않는 규모를 생각한다면 1년에 7, 80종은 남의 고개를 갇웃거리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를 가리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를 더 붙여 8대 불가사의를 만든다면 아마 한국의 나남출판사의 엄청난 출판량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물량’이 압도적이어서 ‘함량’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로 옮겨가는 ‘샘솟는 우물’ 같은 느낌의 신간들이다. 한 권 한 권이 국내 관련학계의 소중한 성과를 담보하고 있으며, 국외저술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만한 선진이론을 받아들이는 출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남이 우리 출판계에 등장한 지 15년이 되는 지금, 당시 우리출판계의 불모지였던 이 분야는 이제 그 어느 학문분야가 부러질 않을 만큼 풍부한 책들을 收藏하게 되었다.

“글쎄요, 남들에게는 무리로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일해요.” 방승영(30) 편집과장은 “우리 출판사의 특성을 안다면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답변한다. 그에 의하면 저·역자가 대부분 학자들이다 보니 내용에 손을 대야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저작도 번역도 ‘사회비평’과 같은 반년간지도, 「사상」과 같은 계간지도 편집부는 “읽기 좋은 편집, 오자없는 책”을 내는 일에만 주로 신경을 쏟으면 된다는 것. 전문학술 출판사들이 다 그렇듯 편집부원들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 분야의 책 만드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칫 재미가 덜할 수도 있겠다.

기획회나 번역·저술자 선정은 ‘나남신서’ ‘사회비평신서’ ‘사회과학연구총서’ 등의 편집위원들과 그 스스로가 언론홍보학 석사(연세대)이자 출판학 박사(한양대 신방과)



나남 편집실.

수료자인 사장 조상호(45)씨의 몫이다. 그러나, 나남출판사의 여러 특성은 관련분야의 내로라한 학자들로 진용이 짜여진 편집위원들의 역할도 크지만 “대학교계 출판업계의 악마” “난공불락의 불도저”로 불리며 하는 일의 많음만큼이나 화제 또한 심심찮게 묻고다니는 조 사장의 출판업자로서의 ‘엄청난’ 노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남의 “목록은 곧 조사장의 얼굴”이며, “분야는 곧 그의 소신”이고, “출판특성은 그의 성격”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관련학과 출판사에서 그의 이미지는 카리스마적이다. 이같은 영향력은 “출판은 나의 종교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출판인으로서의 그의 신념있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목소리 크고, 두 문장에 한 마디는 영어를 섞고, 워낙에 ‘걸진’ 소리를 잘하는 데다, 때론 독설도 마다 않는” 탓에 그를 대충 아는 사람들은 뒷걸음치다 쥐잡은 뜨내기 출판업자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를 아는 이들은 “출판을 알고, 제대로 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보기도문 출판인으로 나남 조사장을 꼽는데 이견이 없다.

서초동 서울교육대학의 일반주택가에 자리한 나남출판사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과 오후 6시30분이다. 그런데 ‘못말릴 정도’로 부지런한 조사장은 출근은 직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하나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11시 전후다. (퇴근 이후의 시간은 예전엔 석·박사 공부를 했고 박사논문만 남겨놓은 요즘은 강사로 나간다. 14년간을 있어 사장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한 직원은 조사장의 쉬는 날은 1년에 설과 추석 두 번 뿐이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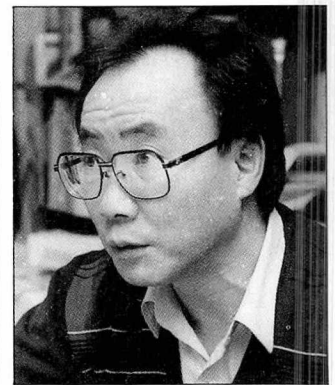
요일도 오전에 운동하는 것을 빼고는(그것도

저자들과) 회사에 나와 일을 한다고 전한다.) 이 출판사에는 사장도 편집부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때론 더하는 듯 보인다. 오역이 보이는 책은 사장이 직접 원문을 대조해 가며 다시 번역하고, 매끄럽지 않은 책은 교열을 본다. 역서도 국내 저작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외국출판사에서신을 띄워 계약을 맺는 식이다.

지난해 나남은 우리 출판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지사를 세웠다. ‘나와 남, 나와 세계, 我와 非我’의 뜻인 나남을 ‘YOU & I’로 표시해 NANAM Publishing House를 설치한 것. 이곳에서는 국내 저작물을 영어로 번역, 외국에 소개하는 업무를 한다. 벌써 다섯권이 나왔다. 요즘 나남은 환경분야 책을 또 ‘쏟아내고’ 있다. —정혜옥 기자

“나는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출판교신자”

돌산을 캐듯 불모의 전문출판 일궈온 조상호 사장



“나는 요즘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조 사장의 일성이다. 작년 「김약국의 딸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결코 아니다. 물론 빛을 갈을 수 있어 좋았고 특별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앞으로 2, 3년 출판에 쏟아붓고 나면 가랑잎 바스라지듯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부러울 것 없다”는 말의 더 큰 비중은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콤플렉스 하나를 없앤 점이다. ‘봐라, 출판으로 돈벌기로 작정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출판은 안한다’는.

돌산을 일구듯 돈 환판 안되는 불모지의 전문출판을 해오면서 가끔 독사머리처럼 고개를 쳐들던 유혹, 종이에 글자를 ‘찍는’ 일로 손쉽게 큰돈을 만지고선 땀땀거리던 동료출판인을 보며 느꼈던 순간의 묘한 열등감이 그 ‘희안한’ 베스트셀러 한 권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시에 해소된 것이다. 그가 해왔던 그간의 일들이 매우 소중하고 옳은 일임을 역으로 확인시켜줬다고 할까.

그는 출판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이렇게 요약한다. 첫째, 전문분야를 가져

야 하고 둘째, 학적(아카데미즘) 배경이 있어야 하며 셋째, 출판인으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중 세번째 것은 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가령 출판인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도 그 하나인데, “책 하나 준다”는 식으로 거드름떠는 교수는 문전박대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얘기도 적잖게 듣지만 그 결과 나남과 저역자 사이에 구축된 것이 ‘동등한 파트너십’. 그것은 학문과 출판이 함께 발전하는 전제이자,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출판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전제다. 그만큼 그는 출판 ‘교’의 맹신자다.